

실패한 청자들

가마에 불을 때고 나자, 탐진바다 쪽에서 된하늬바람이 슬슬 불어오기 시작했다. 찬비까지 말라가는 푸나무에 추적추적 내렸다. 토기장 조씨나 거내꾼 김씨는 가마 불 때던 날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천우신조였다고 말했다. 질꾼 하씨는 고사를 지낸 덕분이라고 믿었다. 된하늬바람이나 삭풍이 불면 가마굴뚝으로 나가야 할 연기가 봉통 쪽으로 역류하거나, 비 때문에 공기가 축축해지면 가마 안의 온도가 잘 오르지 않기 일썩이었던 것이다. 불대장 안씨는 물론이고 토기장과 거내꾼은 가마를 열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최녹천은 월주가마와 모양이 다른 데다 청자 초벌구이 기물을 앞쪽에 재임했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정 족장은 재임할 때처럼 별로 말이 없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주인다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았다. 청자유약을 바른 기물들이 최상품으로 나오기를 바랐다.

이윽고 재임한 순서대로 청자부터 꺼내기 시작했다. 최녹천은 처음 꺼낸 청자사발들을 보자마자 실망했다. 태토와 유약이 완전하게 녹지

않았는지 황갈색이거나 칙칙하고 탁한 녹색의 사발들이었다. 월주가마에서 작업했던 청록색의 빗갈과 완전히 달랐다. 청자라기보다는 잿빛에 가까운 뇌록색으로 예상치 못한 빗갈이었다. 최녹천은 기물들을 모두 깨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청록색의 목이 긴 항아리 몇 점은 광택이 약간 살아 있었다. 최녹천은 청자 기물들을 땀나무꾼 노비와 함께 동막 처마 밑으로 옮겼다. 정 죽장이 최녹천 옆으로 와서 위로했다.



“보기 드문 빗갈이네.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게.”

“죄송허그만요.”

“녹천이 실수는 아니여. 불이 요로코름 맹글어준 것이제.”

“그래도 쓸만한 것을 골라 볼랍니다요.”

“그러시게.”

그런데 토기들은 청자와 달리 최상품이 쏟아졌다. 토기장이 장담한 대로였다. 토기들은 재가 달라붙어 잘 녹으면서 반지르르 빛이 났다. 굴뚝과 가까운 쪽에 있는 토기 몇 점만 누리끼리한 빛깔일 뿐 대부분 밝은 잿빛으로 최상품들이었다. 토기에 무늬를 새겼던 거내꾼 김씨는 가마 밖으로 토기가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뭘 일이다냐! 요번 가마에서 쥘로 잘 나와부렀어야!”

“오메, 요것 쪼간 보소. 청자 바로 뒤에 재임헌 것인디 청자 유약이 달라붙었그만.”

청자 뒤쪽에 재임한 토기들은 청자유약이 달라붙어 물방울 같은 무늬가 흩뿌려져 있었다. 불길이 지나면서 생긴 무늬였다. 토기장은 새로운 변화를 보고 한 마디 했다.

“토기에 청자유약을 바른 청자가 되불겠네잉.”

“다음 가마에서는 청자 유약을 한 번 묻혀볼까? 쪼간 붙었는디도 느낌이 달라봉마.”

거내꾼 김씨가 흐뭇한 얼굴이 되어 말했다. 자신이 만든 무늬에 풋콩처럼 청자유약이 달라붙어 있자 다음 번 가마에서는 아예 토기에다 청자유약을 시유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정 족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느그덜은 토기만 맹글믄 된께 다른 생각 묵지 말어. 느그덜 토기가 양주나 명주에서 을매나 인기가 좋은 줄 알어? 공께 허든 대로 맹글란 말이여.”

정 족장은 토기와 청자가 무엇이 다른지 잘 알고 있었다. 청자에는 해무리처럼 생긴 굽이 있고, 토기에는 아직 그것이 없었다. 그래서 탐진사람들은 굽이 없는 토기를 ‘반데기’라고 불렀다. 그런 반데기에 청자유약을 바른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라고 정 족장은 믿었다. 최녹천은 실패한 청자기물들을 동막 창고에 넣고는 정 족장 집 방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날 밤. 정 족장이 최녹천을 사랑방으로 불렀다. 창호로 흘러드는 보름달 달빛이 호롱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 환했다. 정 족장의 말투는 다른 날보다 더 인자했다.

“녹천이, 오늘 나온 청자 중에서 모양이 괴안찮은 것이 있든디 미산포 창고로 옮길라고 허네.”

“아이고메, 족장님. 오늘 것은 청자라고 부를 자격도 읍습니다요.”

“이런 청자가 있는께 저런 청자도 있는 뱍이제, 으디 청자란 이래야 헌다는 뱍이 있는가? 살 사람이 보기 좋으믄 그만이여.”

정 족장의 말은 진심이였다. 일부 청자그릇들을 미산포 창고로 옮기 겠다는 것은 팔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녹천이가 가고 읍을 때 자세히 봉께 으편 향아리는 격조가 있드랑께.”

“으편 것이 그라든가요?”

“뿐만 아니라 청자향아리 굽이 처녀 발멩키로 이쁘드랑께.”

“족장님은 참말로 안목이 대단허시그만요. 지도 여태 청자 굽을 처녀 발 같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읍그만요. 그러고봉께 족장님 말썬이 딱 맞습니다요.”

“자네는 빗깔 땀시 시방도 실망허는 것 같은디 뵈이 청자 빗깔이당가?”

“월주에서 멩근 것이 청자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요것이 청자빗깔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읍어라우.”

“그런가? 으쨌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네. 첫술에 배부를 리가 읍어. 긍께 다음 가마에서 잘 나오기를 지달릴 줄도 알아야 허네.”

“족장님께서 허락하시른 쌍계사로 올라가 올 시안을 보내겠습니다요.”

“잘 생각했네. 토기장이나 불대장도 뭇이 잘 안 될 때는 쌍계사로 올라가 기도를 헌다네.”

“족장님, 고맙습니다요.”

최녹천은 다음해 봄 가마가 있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되고 힘이 났다. 물론 정 족장이 쌍계사로 가서 기도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어쨌든 내년 봄에 다시 시도해보겠다는 의지가 솟구쳤다. 다음 봄 가마에서는 청자를 토기 뒤쪽으로 재임하기로 했으므로 안심이 되기도 했다. 보통 가마의 온도는 굴뚝과 봉통 사이에서 3분의 2 지점이 가장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최녹천은 땀나무꾼 노비를 데리고 동막 창고로 갔다. 실패한 청자들은 어제 놓아둔 그대로 있었다. 최녹천은 목이 긴 청자항아리를 하나씩 창고 밖 밝은 데로 가지고 나와 확인했다. 비록 청록색 청자이지만 유약이 보글보글 말린 데가 없고, 광택도 앞뒤로 고루 좋은 것을 골랐다. 불단에 놓일 정병(淨瓶) 용도였다. 최녹천은 노비에게 확인하기도 했다.

“꺼먹아, 너는 요 청자항아리가 으쩌냐?”

“지가 뭇을 안당가요.”

“보는 눈은 다 엇비슷한 것이여.”

“저것은 으쩍게라우? 지가 볼 때는 저것이 쪼깐 때깔이 좋그만이라우.”

“아따, 잘 봐분다야. 저것은 족장님께 드릴라고 놔둔 것이여.”

“부처님께 젤로 좋은 향아리를 드려야지라우. 족장님께는 또 맹글어 드리믄 되겠지라우.”

“니 말이 맞다.”

최녹천은 목이 긴 청자향아리를 노비 꺼먹이의 말을 듣고 바꾸었다. 꺼먹이는 본래 이름이 아니었다. 정 족장이 여러 노비 가운데 뿔나무꾼 노비를 부를 때의 이름이었다. 그의 얼굴이 다른 노비보다 유난히 검어서 부르게 된 별명이었다.

꺼먹이를 집으로 보낸 최녹천은 동막에서 나오는 불대장 안씨를 보고 말했다. 불대장 안씨는 다른 도공들과 달리 가끔 최녹천에게 호의를 보여 왔던 것이다. 안씨는 외사촌 형이었던 불대장 최씨가 지병으로 죽자, 뒤를 이은 풋내기 도공으로서 오래 된 도공들에게 실력이 부족하다며 홀대받은 적이 있었는데 최녹천에게 은근히 정을 준 것도 사실이었다.

“쌍계사로 올라가 시안을 보낼라고 헌디 어처케 허믄 좋겠소?”

“주지스님 허락을 몬자 받아야 허겠지라.”

“내가 목을 양식은 갖고 올라가야겠지라?”

“족장님이 절에 양식을 보내 왔으께 그라지 않아도 될 것이요. 우리
덜도 가끔 올라가 기도힘시로 하렛밤씩 목고 오지라우.”

“하렛밤이라든 몰라도 시안 내내 있을라고 헌께 그라요.”

하루 이틀 목는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본
말이었다. 그런데 불대장 안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정 족장이
쌍계사에 보시를 많이 해왔으므로 주지스님이 최녹천에게 별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최녹천이 주저하자 불대장 안씨가 말했다.

“족장님 허락을 받았으든 지랑 같이 올라가지라. 지는 양식을 지계에
지고 많이 올라갔지라. 공께 주지스님허고 친허지라.”

“아이고메, 그래주든 참말로 고맙겠소.”

최녹천은 바로 청자항아리 한 점을 보자기에 썼다. 그런 뒤 불대장
안씨를 따라 나섰다. 정 족장에게 따로 인사할 필요는 없었다. 어젯밤
쌍계사로 올라가서 기도해 보라고 권유한 뒤 겨울 동안 절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쌍계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다. 오솔길을 두어 식경 걸어 올라가니 나타났다. 개울물이 돌돌돌 흘렀다. 불대장과 최녹천은 징검다리를 건넜다. 불대장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연화에게 말했다.

“연화 보살, 주지스님 겨신가?”

“출타하시고 안 겨시는데요.”

“족장님 집에 겨시는 분인데 시안에 여그 살러 왔응께 주지스님 오시믄 부탁허네.”

“침 보는 분은 아니지라우. 마실에서 오다가다 뗏 번 본 분이그만요.”

불대장은 연화에게 부탁하고는 곧 쌍계사를 내려가 버렸다. 최녹천은 법당에서 나와 경내를 휘휘 둘러보았다. 햇별이 드는 요사채 마루에 앉았지만 마룟장은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최녹천이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고 있자, 연화가 눈치를 채고 말했다.

“올 시안은 날이 송신나게 추와불 모양이요. 추운디 공양간 방이라도 들어가 겨실라요?”

“주지스님이 오실 때까지 여그 있을라네.”

“백련사 가셨는디 관음사(현 무위사)까정 들르신당께 해름참에나 오실 거 같그만요. 궁께 방에 들어가 겨시란 말이요.”

“보살, 고맙네만 아무도 읊는 방에 들어가 있기가 쪼끔 거시기 해서
그라네.”

“거시기허기는 뭣이 거시기허당가요. 얼굴이 도적놈 같지는 았그만요.
호호호.”

최녹천은 연화의 한 마디에 부담을 놓았다. 공양간 방은 손바닥만
한 동창 때문인지 어두웠다. 느티나무 뒤주는 윗목 벽 쪽에 놓였고,
그 옆에는 개다리소반과 둥근상이 포개져 있었다. 방바닥은 온기가
미지근했다. 최녹천은 기대하지 았았는데도 점심상을 받았다. 연화가
점심상을 들고 와서 말했다.

“지는 공양간에서 혼자 묵을랑께 드시씨요.”

“미안해서 쌀밥이 목구녕으로 넘어갈지 모르겠네.”

“부처님 마지라서 쌀밥이그만이라우. 궁께 배불리 잡사부씨요.”

“보살, 밥이 많은께 덜어야겠네. 부처님 마지라든 노뵤묵어야제 혼자만
묵으믄 쓴당가? 얼렁 빈 그릇 쪼깐 가져오소.”

“지는 묵을 것이 있응께 얼렁 잡사부씨요.”

“나 혼자 다 묵지 못허겠단 말이네.”

“지가 어처케 마지를 묵는당가요.”

“부처님은 묵는 거 갖고 차별허지 았으셨을 거 같아서 현 말이그만.”

최녹천은 마지를 한 입 한 입 다 먹었다. 반찬으로 올라온 산나물 장아찌에 따뜻한 마지를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잠시 후에는 연화가 구수한 송늬를 가져와 내밀었다. 송늬 그릇을 들고 있는 연화의 손가락이 유난히 희고 길었다.

“쌀밥이라서 그란지 입에서 살살 다 녹아부네.”

“근디 저것은 뭇이당가요?”

“내가 맹근 청자향아린디 주지스님께 드릴라고 갖고 온 것이여.”

연화가 호기심이 동한 듯 보고 싶어 했다. 고개를 가웃거리며 보자기를 뚫어지게 보았다. 최녹천은 연화가 점심상을 차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구경헐랑가? 청자색이 지대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양은 괴안찮네.”

“오메, 요런 향아리는 침이그만요. 요걸 불단에 올려놓으믄 참말로 좋겠그만요.”

연화가 왜 좋아하는지 최녹천은 금방 짐작했다. 청동정병은 보름마다 한 번씩 재로 녹을 닦아주어야 했다. 그런데 정병 안은 녹이 슬어도 닦을 방법이 없었다. 주지스님은 청동정병이 귀하기는 하지만 속의

녹까지 닦을 수 없어서 늘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던 것이다. 연화가 스님보다 자신이 먼저 보물을 본 것이 미안한 듯 합장하고 나갔다. 최녹천은 순간적으로 연화의 마음씨뿐만 아니라 뒤태도 옹골지다고 느꼈다. 연화의 허리는 늘씬했고 바지에 달라붙은 엉덩이는 암팡졌다. 무엇보다 연화의 초승달처럼 생긴 눈썹과 말할 때마다 미소가 어린 입은 최녹천의 심장을 쿵쿵쿵쿵 뛰게 했다. 최녹천은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연화가 방문 닫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연화의 말대로 법경 주지스님은 해질 무렵에 왔다. 최녹천은 주지채 방으로 올라가 법경스님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대가 최녹천이요? 오던 길에 족장님을 뵈었소. 겨울 동안 그대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했소.”

“아이고, 족장님께서 부탁하셨그만요.”

“족장님 보시가 읊다면 우리 절은 어려워졌을 거요. 나는 진즉 백련사나 관음사로 갔을지도 모르오. 연화보살도 떠났을 것이고.”

“아이고, 족장님께서 큰일을 하고 계시그만요.”

“나도 나지만 처녀 공양주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연화보살은 천녀 같아요.”

“무신 말씀이신지요?”

“아버지가 짐승을 사냥하면서 사니까 그 살생의 죄업을 씻으려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공양주 노릇하고 있다오. 몇 년을 공양주 했으니까 이제 절에서 나가도 되는데 말이오. 하긴 데리고 살 남자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마실 도공들 중에 총각이 많든디요.”

“연화 아버지가 허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스님, 지가 요번 가마에서 구운 것인디 가져왔그만요.”

최녹천은 보자기를 주섬주섬 풀었다. 주지스님은 최녹천이 만든 청자 항아리를 보자마자 별떡 일어서며 탄복했다.

“기도했더니 이뤄지는구먼. 꿈에서 이런 정병을 부처님한테서 받은 적이 있소.”

“빛깔은 좋지 않은디 모양은 귀안찮습시다요.”

“어허, 빛깔이 안 좋다니. 청동정병과는 비교가 되지 않소. 당장에 불단에 놓고 와야겠소.”

최녹천은 주지스님을 따라서 또 다시 법당으로 들어갔다. 주지스님은 법당 안이 어둡다며 기름불을 켜다. 주지스님이 불전에 삼배를 한 뒤 불단에 청자항아리를 올렸다. 청록색 청자항아리가 기름불에 빛났다. 주지스님은 청자항아리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나무관세음보살 하고 합장했다. <계속>